

'제대 후 취업 고민 해소' 나주시, 군장병 맞춤형 일자리 지원

육군96보병연대 '김천일대대'와 취업 지원 업무 협약 체결 군부대·예비군 훈련장 찾아가는 취업 이동 상담 운영

나주시와 지역 군부대가 제대를 앞둔 국군장병과 예비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전남 지역 군부대인 육군96보병연대 김천일대대(대대장 조인식)와 '찾아가는 취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 복무 후 사회로 복귀하는 군장병들과 예비군 청년들의 구인·구직 매칭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기업 인력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일자리 취업 이동

상담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청사 부시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영구 부시장, 조인식 대대장과 관·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역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협조', '취업 이동상담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취업지원 행사 참여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등 미취업자 경력개발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연간 61회, 600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 예비군 훈련일을 활용해 훈련장에서 진로검사, 취업알선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인식 대대장은 "나주 지역방위의 핵심인 군장병, 예비군 청년들이 사회 복귀 후 취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영구 부시장은 "제대를 앞둔 군장병들과 취업을 고민하는 예비군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취업 역량 개발과 구인·구직 매칭에 힘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체험 프로그램 신나요"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황룡면 홍길동로 431)에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역사 속 실존인물인 홍길동이 살았던 아지실마을에 조성된 관광 명소다.
최근에는 주말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즐길거리'가 크게 늘었다.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 주민들이 결성한 활동모임체가 연잎밥, 바람떡, 미니 생크림 케이크 등 간식 만들기 체험을 제공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단 김영주 사무국장은 "주말 평균 20여 팀이 꾸준히 예약할 정도로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많은 관광객이 예약할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앞선 15일에는 광주태권도협회 소속 어린이 80여 명이 홍길동 테마파크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아이들은 먼저 연잎밥으로 점심을 먹은 뒤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딸기가 없어진 미니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냈다.
이 같은 성과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입소문과 사업단의 꾸준한 에스엔에스(SNS) 홍보가 빛어낸 결실이다. 참여 문의는 장성군청 농업유통과(061-390-8444)로 하면 된다. 장성=김수권기자

담양군, 농특산물 활용 디저트 개발 공모전 진행

'디저트 상품 개발비' 1개소당 1000만 원 지원

담양군은 오는 5월 17일까지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담양 농특산물 활용 디저트 개발 공모전'을 추진한다.
생태도시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카페들을 찾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으며, 담양군에 소재한 카페, 제과, 가공업체 등 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으며, 분야는 제과와 제빵, 떡, 음료 등 제한이 없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해 5월 17일까지 군 농업유통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5월 24일 실물 및 발표심사 등 평가 절차를 거쳐 9개 업체를 선정해 디저트 상품화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비로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 대표 디저트 상품 개발로 담양 어디를 가든 지역 특색이 담긴 음료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내 업체들이 공모전에 많이 도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제22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 개최

구례군은 지난 21일 한국압화박물관에서 제22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을 수상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압화대전에는 11개국에서 348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엄정한 심사를 150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수상 작품은 한국압화박물관에 연중 전시된다.
올해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는 김화선 작가의 '외갓집 뒤안'에 돌아갔다. 외갓집 뒤안'은 작가의 어릴 적 놀이터이며 따뜻한 위로를 주던 곳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생각나는 광경을 작품에 담아냈다.

김화선 작가는 "꽃의 아름다움에 반해 시작하게 된 압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올곧았던 긴 시간은 이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환희로 바뀌었다"며, "적려와 성원을 보내준 사랑하는 가족과 꽃을 사랑하고 봄을 기다리는 많은 압화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압화대전위원회 우두성 위원장은 "국외에서는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중국, 대만을 포함해 총 11개국에서 작품을 출품하여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 고인돌 축제와 함께하는 '남도전국가요제'

오는 28일~ 29일 이틀간 치열한 예선·본선 예고
진시몬·김다나 등 16명의 인기 가수 축하 공연

화순군이 전남문화예술총연합회에서 오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가왕 선발대회 '남도전국가요제'를 화순 고인돌 축제 중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도전국가요제'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열리는 봄꽃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2023화순고인돌축제' 기간인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자는 다수의 인기 가수들과 경연할 수 있다. 더불어 제주도·강원도·수도권·충청권·영남권 등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신청해 풍성한 공연이 기대된다.
'남도전국가요제'는 화순 고인돌 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되며, 4월 28일 예선이 치러지고 29일 본선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뮤지션들 경연의 장으로 마련된 '남도전국가요제'는 '미스트롯'보다 앞서서 기성가수와 아마추어의 대결방식으로 독특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로 3회째 접어들면서 최정상의 가

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8일 예선에 참가할 뮤지션 중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성가수들이 포함돼 그야말로 기성가수와 아마추어 가수의 본격적인 대결도 기대된다.
본선 축하무대에는 진시몬, 김다나, 손정윤, 양하태, 샌드키, 킹스밴드, 엘리스가 무대를 빛내고, 예선 축하무대에는 고윤미, 김동규, 김미연, 박치영, 불태산, 심재필, 유연주, 홍수필 등 지역 뮤지션들이 독특한 방법으로 관광객과 참가자들에게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가요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며, 대상 시상금도 500만 원으로 높여 참가자들의 많은 참여와 대중문화예술인 발굴이 기대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화순 사랑상품권 1만 원이 지급된다.
남도전국가요제에 대해서 문의가 있거나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남문화예술총연합회(☎061-375-2001)로 연락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	